

2023. 12. 6.(수) 조간용

이 보도자료는 2023년 12월 5일 오전 11:15부터 보도할 수 있습니다.

동행·매력  
특별시서울

SEOUL  
M! SOUL

보도자료

담당 부서: 한성백제박물관 유물과학과

유물과학과장

권순철

2152-5950

학예연구사

최영미

2152-5931

사진 없음  사진 있음  쪽수: 3쪽

관련 누리집  
(메뉴)

baekjemuseum.seoul.go.kr  
(보도자료)

## 한성백제박물관 소장 조선 왕비 인장, 서울시 유형문화재 지정

- 조선시대 왕비의 공무용 인장인 ‘내교인’, 서울시 유형문화재 제569호 지정
- 조선시대 제작한 내교인은 한성백제박물관 소장품이 유일
- 조선 왕실 내명부 수장으로서 왕비의 지위와 역할, 왕실문화 등 보여주어 높은 가치 인정

□ 한성백제박물관(관장 김지연)이 소장 중인 ‘내교인(內敎印)’이 지난 11월 16일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69호로 지정되었다. ‘내교인’은 조선시대 왕비가 공무에 사용한 결재용 인장이다. 이번 ‘내교인’의 유형문화재 등록은 한성백제박물관 소장품이 처음으로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사례다.

○ 이번에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‘내교인’은 2018년 서울 종로구 통의동에서 발굴되었고, 2020년 ‘국가귀속문화재 보관·관리기관’인 한성백제박물관이 재위임받은 유물이다.

※ 한성백제박물관은 2011년 문화재청으로부터 ‘국가귀속문화재 보관·관리기관’으로 지정된 후 현재까지 서울 출토 발굴유물 약 3만 9천 점을 인수 관리중이다.

- 한성백제박물관이 소장중인 ‘내교인’은 현재 전해지고 있는 유일한 조선시대 제작본이다. 현전하는 ‘내교인’은 국립고궁박물관이 소장 중인 내교인이 있으나, 이는 조선시대가 아닌 대한제국 시기에 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.
- 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고시에서는 ‘내교인’의 문화재 지정 사유에 대해 ‘내명부 수장으로서 왕비의 지위와 역할을 비롯하여 왕실의 인장 제도, 전각, 금속공예 등 왕실문화를 보여주는 유물로서 가치가 높다’고 밝히고 있다.
- 한성백제박물관 소장 ‘내교인’이 왕비의 결재용 인장임을 보여주는 근거는 인장에 새겨진 ‘內敎(내교)’라는 글자 때문이다. 조선시대 왕실 여성의 인장에 새겨지는 글자는 신분에 따라 달랐는데 대비는 ‘慈敎(자교)’, 왕비는 ‘內敎(내교)’, 세자빈은 ‘內令(내령)’으로 나뉘었다.
- 한성백제박물관 소장 ‘내교인’은 형태가 유사하고 크기가 다른 2점이 세트를 이루고 있어, ‘내교인’과 ‘소내교인’으로 부르기도 한다. 인장 손잡이 부분은 앉아있는 동물의 모습이다. 친근한 형태가 마치 강아지를 연상시키기도 하지만, 이 동물은 옛 조상들이 상상의 동물로 여겼던 사자이다.
  - ‘내교인’의 재질은 황동이다. 큰 인장은 너비 4×4cm, 높이 5.5cm이며, 작은 인장은 너비 2×2cm, 높이 2.9cm이다.
  - ‘내교인’ 손잡이 사자 도상(圖像)의 근거는 고종 시기 왕실의 보인(寶印)과 부신(符信)을 정리해 간행한 『보인부신총수(寶印符信總數)』에서 확인할 수 있다. 이 책에는 내교인의 도설, 만든 재료, 세부 크기, 그리고 손잡이 부분의 동물이 사자임을 상세히 수록하고 있다.

- 김지연 한성백제박물관장은 “이번 ‘내교인’의 유형문화재 지정은 ‘내명부’ 수장으로서의 왕비의 지위와 왕실문화를 보여주는 유물의 가치를 인정받은 것”이라며 “한성백제박물관은 앞으로도 서울의 발굴유물이 소중한 문화유산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공공박물관의 역할과 책무를 다하겠다”고 말했다.

### 붙임 1. 내교인·소내교인 사진

붙임

내교인·소내교인 사진



내교인·소내교인, 높이 (좌) 2.9cm, (우) 5.5cm, 황동, 조선후기, 한성백제박물관,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재 제569호